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 3,1)



〈세례자 요한의 설교〉, 티에폴로(Giovanni Battista Tiepolo)

[제1독서] 이사 11,1-10

[화답송] 시편 72(71),1-2,7-8,12-13,17
(© 7나드 참조)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주님 이 시대 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 소 서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

[제2독서] 로마 15,4-9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복음] 마태 3,1-12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482] 일월성신을 내시고
 - 봉헌성가: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 성체성가: [169] 사랑의 성사
[156] 한 말씀만 하소서
 - 파견성가: [88] 임하소서 구세주여

마태 3,1-12
Matthew 3,1-12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¹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²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³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⁴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⁵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⁶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⁷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⁹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¹⁰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¹¹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¹²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John the Baptist appeared, preaching in the desert of Judea and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It was of him that the prophet Isaiah had spoken when he said: A voice of one crying out in the desert, Prepare the way of the Lord, make straight his paths. John wore clothing made of camel’s hair and had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His food was locusts and wild honey. At that time Jerusalem, all Judea, and the whole region around the Jordan were going out to him and were being baptized by him in the Jordan River as they acknowledged their sins. When he saw many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oming to his baptism, he said to them, “You brood of vipers! Who warned you to flee from the coming wrath? Produce good fruit as evidence of your repentance. And do not presume to say to yourselves, ‘We have Abraham as our father.’ For I tell you, God can raise up children to Abraham from these stones. Even now the ax lies at the root of the trees. Therefore every tree that does not bear good fruit will be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I am baptizing you with water, for repentance, but the one who is coming after me is mightier than I. I am not worthy to carry his sandals.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His winnowing fan is in his hand. He will clear his threshing floor and gather his wheat into his barn, but the chaff he will burn with unquenchable fire.”

묵상

오늘 세례자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회개하라는 요한의 외침이 선뜻 들어오지 않습니다. 살아가며 크게 잘못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느라 힘들기만 하지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서는 보상은커녕 고통을 안겨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요한이 원하는 회개는 하느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살던 사람이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일을 인간적 시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결심이 회개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끝내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외침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심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느님뿐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에게 까닭 모를 어려움마저 겪게 하신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려고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유 없는 고통까지도 주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끝내 이를 잘 극복한 분들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고통과 행복의 의미를 하느님의 시각에서 새롭게 생각하지요. 오늘 세례자 요한의 외침대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나와 하느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12월 8일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이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신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다는 믿음이 초대 교회 때부터 생겨났으며, 여러 차례의 성모님 발현으로 더욱 깊어졌다. 1854년 12월 8일 비오 9세 교황은 '성모 마리아의 무죄한 잉태'를 '믿을 교리'로 선포했다. 동정 마리아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것은 마리아께서 단순히 악에서 보존되었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리아께 은총이 충만하다는 것을 뜻하며 성모 승천 대축일과 마찬가지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하나님의

어머니시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마리아의 승천과 원죄 없으신 잉태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떠나 주름이나 어떠한 흠도 없는 교회의 표상을 예표한다(에페 5,27).

한국 천주교회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요셉 성인과 함께 공동 수호자로 모시고 있다.

대림 시기에 거행되는 이 대축일은 '구원의 신비'의 한 부분을 구현하는 축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협력한 마리아의 믿음을 더욱 깊이 되새기게 해준다.

동정녀여, 당신이 받으신 축복으로 모든 피조물이 축복받았습니다! <성 안셀모 주교의 기도 중에서>

마리아여, 하늘과 별, 땅과 강들, 낮과 밤, 그리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창조되어 사람의 권하에 속하는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 잃었던 첫 영광을 당신으로 말미암아 되찾아 표현할 수 없는 새 은총을 얻게 되었으므로 서로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

새롭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입어 만물은 기뻐 용약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지어내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이지 않게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 가운데 보이게 현존하시어 자신들을 사용하심으로써 거룩함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듯이 큰 은혜들은 복되신 마리아의 복된 태중에서 태어나신 복된 열매로부터 나왔습니다. 마리아여, 당신 은총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명부에 있던 이들은 해방되어 기뻐하고 지상에 있는 이들은 새로워져 기뻐합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동정성의 열매이신 영광스런 아드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그분의 죽음이 있기 전에 죽었던 모든 의인들은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났기에 기뻐하고, 천사들은 반쯤 허물어진 자기들의 도성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용약합니다.

넘치는 은총으로 충만하신 여인이여, 모든 피조물이 당신 충만함의 흘러 넘침을 입어 새싹이 트듯 되살아납니다. 복되고도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여, 당신이 받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로부터 축복을 받고 창조주께서는 그들로부터 찬미를 받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의 품안에서 태어나시고 자신과 같으시며



엘 그레코, <The Virgin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자신처럼 사랑하시던 외아드님을 마리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성상 하느님과 마리아의 유일하고 공통적인 아들이 되도록 마리아에게서 한 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외아드님이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느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 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리아는 하느님을 낳으셨습니다. 만물을 지어내신 하느님께서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되시고 이렇게 하여 당신이 지어내신 모든 것을 재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만물을 지어 내실 수 있었던 분은 실추한 피조물을 마리아의 도움 없이 재창조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창조된 만물의 아버지이시고 마리아는 재창조된 만물의 어머니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주형성의 아버지이시고 마리아는 우주 재형성의 어머니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된 분을 낳으셨고 마리아는 그를 통해서 만물이 구원된 분을 낳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치 못하는 분을 낳으셨고 마리아는 그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존재치 못하는 분을 낳으셨습니다. 마리아여, 주님께서 참으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만물이 주님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큰 은혜를 입도록 하셨습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
2016년 12월 8일(목) 오후 8시

레지오 마리아 제1차 가두선교 워크숍



레지오 마리아(단장 김국 스테파노)가 주관하는 가두선교 워크숍이 11월 27일(일) 11시 30분 친교실 교실에서 32명의 레지오 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단장의 시작 기도로 시작된 1부는 레지오 마리아 영적 지도신부인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 신부의 격려 말씀과 강복, 그리고 가두선교 교육 비디오 시청이 있었다. 점심 식사 후 이어진 2부에서는 가두선교의 중요성과 임하는 자세, 그리고 실제적인 가두선교 대화법을 소개했다.

2015년 12월부터 시작된 본당 레지오 마리아의 가두선교는 센터빌과 우드브릿지 지역의 한인 대형 그로서리에서 쇼핑객을 상대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본당 꼬미시움 산하 43개 프레스디움 중 11개 프레스디움이 참가하고 있다.

토막 특강 겨울철 심장 관리



K of C (단장 주흥식 도미니코)가 주최하는 토막 특강 중 “겨울철 심장관리”를 주제로 한 특강이 11월 27일(일) 친교실에서 열렸다. 강사 이혁찬 루카 형제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관해 환자들 케이스를 예로 들어 설명해 교우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도왔으며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Quo Vadis 성소자 모임



본당의 성소자 모임(Quo Vadis)이 11월 27일(일) 학생 미사 후 친교실에서 열렸다. 8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Mr. Joe 선생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볼때 그들을 판단하기 보다는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황님의 12월 기도 지향

- **일반 지향: 어린이 병사의 근절**
어린이를 군인으로 내모는 추문이 온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기도합니다.
- **선교 지향: 유럽**
유럽인들이 삶에 기쁨과 희망을 주는 복음의 진선미를 다시 찾도록 기도합니다.

요한회 모임



본당 50대 신자들 모임인 요한회(회장 윤봉근 도미니코)는 11월 27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회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 날 모임은 활동보고, 회계보고 및 차기 회장 선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이중 주요 활동사항인 노인 아파트 방문과 나눔터 봉사 활동 등을 검토했다. 백인현 주임 신부는 단체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화합을 당부하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회의 후 나눔터에서 회장단과 회원 가족 등 30여 명이 바비큐 파티를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2017년 차기 회장으로 배석범(알베르토) 형제가 선출되었으며, 오는 12월 17일에 송년회를 가질 예정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새교황교서 자비와 비참 발표

Misericordia et Misera

비록 자비의 특별 희년은 끝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비의 때에 살고 있다. 이는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자비와 비참(Misericordia et Misera)’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신 장문의 교황 교서에서 전하는 메시지이다. 이 교황 교서는 자비의 해 폐막 다음 날인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에 발표되었다.

이 교황 교서의 제목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만나신 장면과 관련된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자신의 ‘요한 복음 강해’에서 이 만남에 관하여, 예수님과 그 여자, “이 둘은 홀로 남았다. 곧 자비와 비참이 남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 복음의 가르침이 “자비의 특별 희년의 폐막에 빛을 비추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을 가리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희년 동안에 우리가 받은 **자비의 커다란 은총**에 비추어 우리의 첫 응답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는 특히 미사의 희생 제사를 포함한 전례 거행과 **치유의 성사**인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와 같은 다른 성사들을 통하여 계속 자비를 거행하여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자비의 거행을 지속하기 위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셨다. 여기에는 성경을 더 잘 알리고 널리 전파하는 데에 해마다 하루를 바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교황께서는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새롭게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으로 삼을 것을 요청**하셨다. 그리고 교황께서는 이 성년에 이미 시작된 여러 계획들을 지속하도록 하시어, 자비의 선교사들이 그들의 직무를 계속할 것을 요청하시고 성 비오 10세회의 사제들이 ‘자기 본당의 신자들을 위하여’ 고해성사를 거행하고 죄를 사면하는 권한을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연장해 주셨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모든 사제들이 낙태의 죄를 사면하는 권한도 연장해 주셨다. 교황께서는 “저는 매우 단호하게 낙태가 대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무고한 생명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저는 하느님 아버지와 화해하려는 참회의 마음을 찾으신 하느님의 자비가 가닿지 못하고 찢을 수 없는 죄는 없다고 말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말하여야 합니다.”

비록 희년이 폐막되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자비의 문은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라고 교황께서 말씀하셨다. ...

“지금은 **자비의 때**입니다. 모든 죄인은 지치지 않고 하느님 아버지께 용서를 청하며 늘 그분의 환대하시고 께안아주시는 손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산타가 되어 주세요!



원주 까리따스 주최로 Giving Tree가 세워졌습니다. 강원도 지역, 네팔,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지역 아동들의 소원이 담긴 담은 카드가 달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주세요. 후원금은 아동 1명당 \$20입니다.

CCD-CYO News *What Happened in our CYO?*

Bridge Bowl Champs!



St. Paul Chung Team



On Friday, November 25th some CYO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annual Bridge Bowl tournament that is a Co-ed flag football tournament.

Out of twelve teams from other churches, St. Paul Chung brought home the pride of being first place champs!!! Their hard work and weekly practices did not go unnoticed.

A big thank you goes out to everyone who came out to support and especially to the parents who graciously gave their time and efforts to provide food and care for all the participating students.

Great job, team!!



Religious Studies

Advent

· PART I ·



What is Advent?

Advent is a time of preparation for the coming of Christ at Christmas. Traditionally, it has been celebrated with prayer and fasting, which is why it is known as the "little Lent." Advent is also the start of the liturgical year in the Roman Catholic Church.

When does Advent start?

As the Catholic Encyclopedia notes, "Advent is a period beginning with the Sunday nearest to the feast of St. Andrew the Apostle (Nov 30) and embracing four Sundays." That means that the First Sunday of Advent can fall as early as November 27 or as late as December 3. First Sunday of Advent 2016: November 27, 2016

ANNOUNCEMENT

1. CCD Christmas Performance



Sunday, December 18th
1:30 - 3:00 PM
at the Parish Hall

2. CYO Winter Retreat

- When : Dec 16-18
- Where : Camp Highroad in VA
- * **No First Communion Classes :**
Dec 21 & Dec 28
- * **No Sunday school :** Dec 25 and Jan 1

1 전신자 대림 특강

- 일시 : 12월 6일(화) 오후 7:30 미사 후
- 주제 : "하느님 사랑 안에서 내 신앙고백"
- 강사 : 박민서 베네딕도 신부님

2 대림 합동 고해 성사

- 일시 : 12월 14일(수) 오후 3시- 오후 5시, 오후 7시-오후 9시

3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미사

- 의무 대축일 미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2월 8일(목) 오후 8시

4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12월 4일(일) 오전 11:30 (B-3,4)

5 청소년 사도회

- 일시 : 12월 4일(일) 오후 1시(B-3,4)

6 레지오 연차 총친목회

- 일시 : 12월 4일(일) 오후 6시(친교실)

7 하상 성인학교 가을학기 종강식 및 발표, 전시회

- 일시 : 12월 4일(일) 11:30 (친교실, B-1,2 & A-2,3)
- 가을학기 동안 수업한 과목별 작품 전시 및 발표회에 모두 참석하시어 즐겁게 관람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명희 올리비아 교장 (703) 217-2775

8 파티마 세계 사도직

- 일시 : 12월 8일(목)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미사후 본당, 오후 8시
- 33일 봉헌 및 봉헌 갱신식
- 문의 : 김만식 재권요셉 (703) 403-1185

9 공동체 기도회

- 일시 : 12월 10일(토) 오후 8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소속 공동체에 참석하여 신앙과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10 꾸르실료 송년 울뜨레아

- 일시 : 12월 9일(금) 오후 6:30(친교실)
- 문의 : 객노덕(도미니꼬) (703) 608-9664

11 단체장회의

- 일시 : 12월 11일(일) 오전 11:30(B-1,2)

12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12월 11일(일) 오후 1시(B-3,4)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2월 4일(일)	대림 제2주일	구역임원교육(11:30, B-3,4), 성모회 임원회(13:00, A-3), 레지오 연차(18:00, 친교실), 청소년사도회 (13:00, B-3,4), 예수회 후원회 모임 (11:15, A-1), 하상성인학교 종강 및 발표 전시회 (11:30, 친교실 A-2,3, B-1,2)
5일(월)	대림 제2주간 월요일	아침 미사 (6:00, 성당)
6일(화)	대림 제2주간 화요일	신임 알랑턴 교구장 착좌식 (14:00), 레지오 마리아(20:00, 친교실), 예비자 교리(20:00), 박민서 신부 대림 특강 (20:00), 성령기도회 (20:00, 도서실)
7일(수)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레지오 마리아 (9:30, 친교실), 첫 영성체반 (하상관)
8일(목)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아침 미사 (6:00, 성당), 대축일 미사 (20:00)
9일(금)	대림 제2주간 금요일	꾸르실료 송년 울뜨레아 (18:30, 친교실), CLC (20:00)
10일(토)	대림 제2주간 토요일	아침미사 (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 (9:30, 친교실), 공동체기도회 (20:00)
11일(일)	대림 제3주일	단체장회의(11:30, B-1,2), 꼬미시움 월례회의(13:00, B-3,4), 복서단모임(12:40, B-1,2), 재속프란치스코(11:30, A-1,2), CLC cluster모임 (16:00, 친교실, 하상관), 바오로회 4차 총회 (18:00, 친교실), 주일학교 교사임원진 송년모임 (18:00)

13 주일학교 교사회

- 일시 : 12월 11일(일) 오후5시

14 바오로회 4차 총회

- 일시 : 12월 11일(일) 오후 6시(친교실)
- 문의 : 김윤식 블라시오 (214) 592-6369

15 주일학교 교사 임원진 송년모임

- 일시 : 12월 11일(일) 오후 6시(친교실)

16 교육부 법률 세미나

- 일시 : 12월 11일(일) 오전 11:30(A-1,2)
- 내용 : 음주운전/난폭운전 사고시 대처방안 및 법률적 절차
- 강사 : 허진 세바스찬 변호사
- 문의 : 윤재원 베드로 (215)510-7513

17 동전모으기 저금통 배부(복지부 주관)

- 불우 이웃 돕기 동전 모으기 저금통을 현관 입구에서 배부하니 한 가정이 한 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대림시기 동안 동전을 모아 주님 공헌 대축일(1월 8일)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CYO Winter Retreat

- 일시 : 12월 16일(금)-12월 18일(일)
- 장소 : Camp Highroad • 등록 : 교실이나 사무실
- 대상 : 9학년-12학년
- 문의 : 김 대니얼 (703) 795-1558

19 성탄 제대 꽃 봉헌 접수

- 성탄 제대 꽃 봉헌을 하실 분은 제대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 황 줄리아 제대회장 (703) 628-5262

20 2017년도 매일미사, 병초, 봉헌초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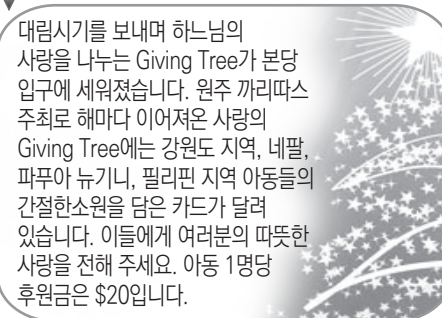
- 성물부에서 2017년 매일미사, 병초, 봉헌초(미사에 사용)를 주문받습니다. • 신청 : 성물부

21 하상 도서관 신간 서적 안내

- 샬 까간기(황창연 신부), 가톨릭 신앙의 40가지 보물(스콧 한), 멈추어야 할 때/나아가야 할 때/돌아봐야 할 때(쑤) 등 다수
-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타가 되어 주세요

대림시기를 보내며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Giving Tree가 본당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원주 까리따스 주치로 해마다 이어져온 사랑의 Giving Tree에는 강원도 지역, 네팔,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지역 아동들의 간절한소원을 담은 카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세요. 아동 1명당 후원금은 \$20입니다.



2차헌금

Catholic Charities Christmas Collection

- 일정 : 12월 4일(일) - 전단지과 기부부후 배부 12월 13일(일) - 2차헌금 공지사항 및 모금
-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6일(화요일, 오후 2시)에 신임 알랑턴 교구장님(Most Reverend Michael F. Burbidge)의 착좌식이 있습니다. 신임 주교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은퇴하시는 로버디 주교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판공성사표 발송

성탄 판공성사표와 2017년도 교무금 카드를 각 가정으로 발송했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12월 8일 (목) 오후 9시~11시

- 가톨릭 소식 :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따로 또 같이 : 갈등과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해 가는 가정 드라마(4)
- 인터뷰 / 아, 사람! : 자연 요리 연구가 문성희 요세피나(2)
- 특강 : 서양문화의 어머니 그리스도교 가톨릭대 철학과 박승찬 교수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11월 27일 (대림 제1주일)

주일헌금	\$ 7,381.56
교무금	\$ 14,200.00
교무금(신용카드)	\$ 2,340.00
특별헌금	\$ 600.00
2차 헌금	\$ 0.00
합계	\$ 24,521.56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 **병중에 계신분**
- 고성교(스테파노), 김경화, 은구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중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김영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승영,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이창덕(비오), 김영식(베드로), 임홍빈(미카엘), 양소자(루시아), 이숙(소하 데레사), 박영철(베드로)

- ♥ **군복무자**
-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윤박철(프란치스코),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엔도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티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최용성(프란치스코), 이솔(루시아), 고미엘(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주택용자, 재용자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엽)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스카이 학원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가을학기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챌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신디 리 부동산 텔리 전문 사업체 이루시아 703-338-0008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F teck connection, LLC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마태오 흥 종합보험 오바마케어 703-969-8956 (마태오) 703-969-8954 (소피아)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월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찬들리 HYUNDAI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 오바마 건강보험 카이저 메디케어 도와드립니다 703-649-2110	5분 도정 증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임경옥 부동산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Sola Salon 조지 메이슨 앞 유니버시티몰 내 Studio #5 남자 헤어 컷 : \$10 703-868-9427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Landscape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작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